

푸른신문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제1,154호

달서 · 달성 지역신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감삼동
찌개집

달서구 당산로41길 120
070-8911-1111

[| | | |]
M T G.
coffee & bakery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 144 1층 엠파이저

Coffee bite.
호주식 커피전문점
감삼점 070.8911.2222

SHIN Woo
신우애드
간판·현수막·인쇄·판촉물·시공전문 업체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2길 18 (비산동 531-8)
Tel 010-7563-4454 Fax 070-7502-4200

소도둑 대구용산역점
예약 문의 053-567-8116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811-6

성서 최고의 힐링 공간
성서 롯데시네마 옆
365일 24시간
운영중!
25시 사우나
찜질방
온수 구름방 퀸백원
053-591-9100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7번 출구, 우리은행 건물 8층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연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5면 상세 내용 참조

* 2.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모든 지면 광고 5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구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공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세무사 정수득 공인증개사 사무소
대표 정 수 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증개
매물항상접수, 공동증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대구 · 경북 판매 1위 통신업체
Since 2010
ANGEL TELECOM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www.엔젤통신.com
대표문의 1588-4849



풍성하게! 다양하게! 편리하게! 푸른방송 정기 채널개편 안내

유익한 방송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기 채널개편>을 시행합니다.
새로워진 푸른방송 채널을 만나보세요.



*2021. 01. 05. 기준

HD국민형방송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상파
6-2	EBS2	지상파
7-1	KBS2	지상파
8-1	CJ오쇼핑	홈쇼핑
9-1	KBS1	지상파
10-1	롯데홈쇼핑	홈쇼핑
11-1	MBC	지상파
12-1	GS SHOP	홈쇼핑
13-1	TBC/SBS	지상파
14-1	NS홈쇼핑	홈쇼핑
15-1	현대홈쇼핑	홈쇼핑
16-1	홈앤쇼핑	홈쇼핑
17-1	JTBC	종편
18-1	채널A	종편
19-1	TV조선	종편
20-1	MBN	종편
21-1	공영쇼핑	홈쇼핑
22-1	SBS Biz	경제
23-1	연합뉴스TV	보도

번호	채널명	장르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6-1	MBC에브리원	오락
26-2	MBC ON	오락
27-1	Mnet	음악
27-2	채널다이아	오락
28-1	코미디TV	오락
29-1	XtvN	오락
30-1	스크린	영화
30-2	인디필름	영화
31-1	OCN	영화
32-1	OCN 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2-3	더무비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라이트TV	오락
36-1	JTBC2	오락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37-2	채널이엠	시니어
38-1	KBS JOY	오락
39-1	디원	드라마

번호	채널명	장르
39-2	Fun TV	오락
40-1	SBS플러스	드라마
41-1	드라맥스	드라마
42-1	KBS드라마	드라마
43-1	MBC드라마넷	드라마
44-1	JTBC골프	스포츠
45-1	SBS스포츠	스포츠
45-2	SBS골프	스포츠
46-1	KBSN 스포츠	스포츠
46-2	SPOTV	스포츠
47-1	MBC스포츠+	스포츠
48-1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49-1	FTV	취미
50-1	투니버스	키즈
51-1	JEI재능TV	키즈
52-1	챔프	키즈
52-2	애니맥스	키즈
53-1	애니박스	키즈
54-1	O tvN	여성
54-2	OGN	게임
55-1	리얼TV	오락
56-1	채널차이나	드라마
57-1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번호	채널명	장르
58-1	SBS funE	오락
59-1	온스타일	여성
60-1	EDGE TV	오락
61-1	KBS W	여성
62-1	올리브	여성
63-1	아이넷	음악
64-1	이벤트TV	음악
65-1	GTV	여성
65-2	SBS MTV	음악
66-1	OCN 스릴즈	영화
67-1	MBC M	음악
68-1	상생방송	종교
69-1	BTN불교TV	종교
70-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71-1	CTS기독교TV	종교
71-2	CBS	종교
72-1	한국직업방송	정보
73-1	복지TV	복지
74-1	사이언스TV	정보
95-1	OUN	교육
96-1	국회방송	공공
97-1	KTV	공공

디지털케이블방송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0	케이블 TV VOD	가이드
E 1	푸른방송	지역채널
E 2	EBS2	지상파
B 3	MBC 에브리원	오락
E 4	쇼핑엔티	홈쇼핑
E 5	TBC / SBS	지상파
E 6	GS SHOP	홈쇼핑
E 7	KBS2	지상파
E 8	CJ오쇼핑	홈쇼핑
E 9	KBS1	지상파
E 10	롯데홈쇼핑	지상파
E 11	MBC	지상파
E 12	NS홈쇼핑	홈쇼핑
E 13	현대홈쇼핑	홈쇼핑
E 14	JTBC	종편
E 15	EBS	지상파
E 16	MBN	종편
E 17	홈앤쇼핑	홈쇼핑
E 18	채널A	종편
E 19	TV조선	종편
E 20	tvN	오락
E 21	공영쇼핑	홈쇼핑
E 22	신세계쇼핑	홈쇼핑
E 23	연합뉴스TV	보도
E 24	YTN	보도
E 25	OCN	영화
E 26	XtvN	오락
E 27	Mnet	음악
E 28	드라맥스	드라마
E 29	E채널	오락
E 30	OCN 무비즈	영화
유료 31	캐치온	영화
E 32	OCN 스릴즈	영화
E 33	O tvN	여성
E 34	스크린	영화
E 35	올리브	여성
B 36	AXN	영화
B 37	Mplex	영화
E 38	현대홈쇼핑플러스샵	홈쇼핑
E 39	SBS플러스	드라마
E 40	K쇼핑	홈쇼핑
E 41	KBS드라마	드라마
E 42	W쇼핑	홈쇼핑
E 43	MBC드라마넷	드라마
B 44	JTBC2	오락
E 45	SK stoa	홈쇼핑
B 46	드라마큐브	드라마
E 47	NS Shop+	홈쇼핑
E 48	채널다이아	오락
E 49	온스타일	여성
B 50	JTBC4	여성
E 51	CNTV	드라마
E 52	드라마H	드라마
B 53	디원	드라마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B 54	티비이조선2	정보
B 55	채널A플러스	정보
B 56	MBN플러스	정보
B 57	CMCTV	오락
B 58	하이라이트TV	오락
B 59	SKY	드라마
B 60	KBS JOY	오락
B 61	씨네피	영화
B 62	SBS funE	오락
E 63	K Star	오락
B 64	Fun TV	오락
B 65	GTV	여성
E 66	리얼TV	오락
E 67	OBS W	정보
E 68	Edge TV	오락
B 69	KBS W	여성
E 70	트렌디	여성
B 71	NQQ	오락
E 72	파션N	여성
E 73	MBC ON	오락
E 74	ONT	오락
E 75	ONCE	오락
유료 77	캐치온2	영화
B 78	인디필름	영화
B 79	더무비	영화
B 80	SBS Biz	경제
E 81	MTN	경제
B 83	토마토TV	경제
E 84	한국경제TV	경제
B 87	넷지오와일드	다큐
E 88	넷지오플러스	다큐
E 89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B 90	다큐원	다큐
B 91	OLIFE	취미
B 92	SBS F!L	오락
B 93	채널 뷰	오락
B 94	채널나우	오락
B 95	채널유	드라마
B 96	채널이엠	시니어
E 97	청춘시대TV	가이드
E 98	씨네플러스	영화
E 99	뉴트로TV	시니어
B 100	아이넷라이프	시니어
유료 103	플레이보이TV	성인
유료 104	하나TV	성인
유료 105	미드나잇	성인
유료 106	비키	성인
B 108	큐브TV	오락
B 109	SBS MTV	음악
E 110	MBC M	음악
E 111	아이넷	음악
E 112	이벤트TV	음악
E 113	GMTV	음악
E 114	KTV	공공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tbl_r cells="3" ix

달서구 '2020 안전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기초자치 단체부문 우수상(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개인 및 기관의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대응 활동으로 '차량안심방역 자원봉사', '희망나눔 키트 전달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차량안심방역 자원봉사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최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작년 5월부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평균 30대, 총 900대 이상의 차량방역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방역 효과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역 동참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희망나눔 키트 전달사업은 작년 5월 훌봄 어르신 가정 500세대를 대상으로 희망나눔 키트와 자원봉사자들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손편지를 함께 전달하였다. 희망나눔 키트는 건강용품, 생활필수용품, 개인 위생용품, 간단한 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나눔 키트 전달사업은 코로나19로 지친 훌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성과가 있



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안전문

화운동 확산을 통해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국토교통부 대구산업선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국토교통부는 14일 대구산업선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차례에 걸쳐 오전 10시에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참여한 지역민들이 이번에 신설된 호림역이 접근성과 화물역사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센터에서 각각 열려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먼저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참여한 지역민들이 이번에 신설된 호림역이 접근성과 화물역사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달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400여 명의 지역민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3차례 나눠 열렸다.

대구산업선이 달성군 가창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을 관통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지역민들은 역사가 들어설 위치에 관한 질문과 또, 옥포읍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주민 일부는 철도역 신설도 요구했다.

윤종명 대구시 이장·통장 연합회 회장은 "우리 달성군 주민공청회에 대구산업선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 대구산업선이 우리 달성군을 관통하는 시점에 우리 달성군 발전에 더욱더 용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화명곡역에서 구지 산단까지 역이 추가로 몇 개 더 신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산업선 종점인 국가산단역에 화물기지 설치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질문

에 있어서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기지는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하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 산업선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산업선은 지난 1월 11일 서재세천역과 성서단 호림역 추가 건설이 확정돼 총 역사는 9개로 됐으며,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4월경에 기본안이 나오고 이후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053 572-6000

엄마 손맛 숨은 맛집

감삼동 '우복당 보쌈·국밥'

코로나 여파로 고향집과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는 요즘 정말 집밥 같은 밥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감삼동 우복당 보쌈 국밥집입니다.

이 식당을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곳"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5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에서 혼자서 장사하는 사장님은 국밥과 보쌈을 메인으로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주

일 중 이틀만 국밥, 보쌈을 하고 나머지 날은 수십 년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국이 나옵니다. 매일 다른 국인데도 어쩜 국이 하나같이 다 맛있을까 궁금해 그 비결을 물어보니 "내가 요리도 못하는데 재료로라도 좋아야 맛있지 않겠어? 매일 아침 인근 시장과 식자재 마트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사온다"며 보통 6가지가 넘는 반찬까지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내십니다. 거기다 6,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집을 다녀오면 항상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이 날까요? 항상 맛있는 반찬과 밥 부족하면 더 가져다주시니 그 집에서는 손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챙겨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안한 일 이지만 가끔 가는 어머니 집보다 더 푸짐하고 맛나게 먹습니다. 그날은 내 배도 마음도 가득 채우고 온답니다.

"안 어렵다면 거짓말이지만, 오는 손님이라도 따신 밥 맛나게 먹이고 싶다. 찾아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니까."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재미난 삶을 살고 계신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도 본인은 솜씨가 없다며 겸손한 자세로, 거기다 성실과 따뜻한 인정까지 보태니 어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추운 겨울, 더구나 코로나로 힘든 요즘. 우복당으로 가서 어머니 손맛



한번 진하게 느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현수 기자



웃음이 넘치는 **33떡볶이** 이곡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우리의 일상은 외출 자체, 간편한 식사 확산, 배달 수요 증가 등 먹는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지쳐가고 있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아하는 분식! 그중에서도 떡볶이 맛집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바로 이곡동 33떡볶이이다!

이곡동 평화타운 상가에 있는 이곳은 식품 제조 기업 산돌과 춘천의 33꼬마김밥이 합쳐져 만들어진 브랜드란다.

뭔가 메뉴가 엄청 많아 고민이 되었다. 다양한 맛의 떡볶이와 각종튀김, 꼬마김밥, 순대, 어묵, 라면, 줄면...

떡볶이만 해도 매콤달콤 33떡볶이, 국물떡볶이, 로제떡볶이, 차돌떡볶이, 라볶이 등 이렇게 있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마성의 꼬마김밥은 그 재료 선정에 엄청난 시간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사이드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각각 특색 있는 맛이라 헷갈리지만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곳 점주인 구남균(53) 대표는 성서지역에서 오랜 시간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 코로나19로 학원이 살짝 힘들어지자 그는 망설임 없이 33떡볶이를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 맛에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

구 대표는 뭘 먹을지 고민도 되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세트메뉴를 추천한다.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배달 주문도 많고 포장해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33떡볶이 이곡점의 세트구성을 주문하고 빠르게 포장해서 사무실로 오니 군침 나는 비주얼이 식욕을 땡기게 한다. 세트구성은 국물떡볶이, 모듬튀김, 순대 등 혜자스런 양으로 2인 혹은 3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국물떡볶이는 매운맛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꼬마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먹하면 진짜 대박이다! 튀김도 갓 튀겨진 튀김답게 걸비촉촉! 마지막으로 쫄깃한 식감의 찰순대가 기가 막히다.

코로나 시대의 추운 겨울… 사무실에서 맛깔나는 떡볶이 세트를 먹으니 이게 바로 힐링인가 싶다! 맛있는 떡볶이, 맛있는 분식이 맹길 땐 고민 말고 33떡볶이로 GO!

최준업 기자

달서구, 인구절벽 극복 결혼장려사업 ‘달달결혼 이야기’ 사연 모집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구 데드크로스 본격화, 초저출산 절벽 등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달달(달콤한, 달서) 결혼 이야기’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

* 인구 데드크로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 하는 현상

달달결혼 이야기 코너는 예비부부의 프러포즈와 아름다운 사연,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부부이야기, 좌충우돌 아이

양육기, 이심전심으로 살아가는 중년부부의 사랑,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노부부 결혼 생활의 지혜 등 다양한 결혼 이야기를 분기별로 신는다.

사연 소개를 원하는 구민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달서구 여성가족과 결혼장려팀(667-3591~3)으로 하면 된다.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결혼관으로 바꿔, 젊은 이들에게 ‘결혼은 축복이다’



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결혼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평소 생각

하는 결혼관을 들어보는 청년

과 부모들의 결혼 공감의

장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달서구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달서구는 2월 5일까지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사회경험은 물론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층 대학생의 취업경력을 형성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한 이번 공

개모집에는 34명 선발에 401명이 신청해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산추첨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선발 4명, 일반선발 30명 등 총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행정인턴은 2월 5일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1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구청과 보건소 등 14개 부서(22개 사업)에 근무하며, 단순 행정 보조업무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사업 참여, 구정발

전 아이디어 제출 등을 통해 달서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행정인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승 기자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관리 · 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인천동행 053-572-0112	총무 및 일반 사무원	고졸 이상	연 2,700만 원 이상
송원주간보호센터 053-656-1191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설)	무관	월 180~200만 원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 053-623-0980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설)	무관	월 1,822,480~190만 원
대구광역시재활지원센터 053-359-3730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설)	무관	월 2,538,000원 이상
(사)한국직업강간호협회 053-853-8579	심리상담 전문가	대졸	연 2,800만 원 이상
온드림자역사회서비스센터 053-710-8799	미술 강사	석사 이상	월 115만 원 이상
주식회사 엠제이엠 053-562-8476	경리 사무원(일반 사업체)	고졸 이상	월 20만 원 이상
대구퀴즈 053-527-2022	영양사	무관	월 220~280만 원

■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대동환경측정 053-588-5672	대기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무관	연 3,000만 원 이상
송원주간보호센터 053-656-1191	간호조무사	무관	월 185~190만 원
맑은속내과의원 053-473-7585	간호조무사	무관	연 2,400~2,500만 원
사온요양원 053-606-1661	간호조무사	무관	월 1,822,480원 이상
(주)한국직업강간호협회 053-853-8579	일반 간호사	전문대졸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대덕의료법인보령요양병원 053-555-0660	간호사	무관	월 230~250만 원 (상여 1000%)
침종은노인복지센터 053-474-1253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종사원	무관	월 1,142,320원 이상
프로텍트엠 053-291-8098	웹 디자이너	무관	월 220~240만 원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 053-623-0980	물리치료사	무관	월 1,822,480~190만 원
(사)한국직업강간호협회 053-853-8579	운동처방사	전문대졸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이화레이스 054-581-8177	직물(텍스타일) 디자이너	고졸 이상	월 185~200만 원
일등종합유통 054-269-8889	기타 시각 디자이너	무관	연 21,697,60~24,000,000원
(주)단텍 054-714-1401	기계·급속 제도사(캐드원)	무관	연 3,000만 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식회사 엠제이엠 053-562-8476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전문대졸 이상	월 280만 원 이상

■ 기타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사단법인 한울림 053-246-2925	배우 및 모델	전문대졸 이상	월 183만 원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seobu

사업은 2~11월까지 운영되며,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회망복

25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성서기초푸드뱅크는 “이 사

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식계층 제로(0)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먹을 수 있는 식품량)을 매월

<자료제공:성서중합사회복지관>

‘이미전시 푸드팩 사업’ 성서기초푸드뱅크 대구경북 최초 2021년 수행기관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는 지난 2020년도부터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이미전시 푸드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전

국 450여개 소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해 총 20개 소가 선정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성서기초푸드뱅크가 선정됐다.

2021년도 이미전시 푸드팩

달서구, 경일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달서구는 지난 12일 달서구청 5층 회의실에서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이태훈 달서구청장, 권성근 경일대 산학협력단장, 김현우 경일대 무인항공교육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발굴과 활성화, 연계사업 추진 시 인적자원과 보유시설 공동 이용, 명품 달서 전국학생드론경연대회 개최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소띠 해를 맞아 펼쳐진 협약식을 기념해 드론이 새해 덕담과 서명 필기구를 전달하는 ‘드론처럼 나르소’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달서구는 2017년부터

이동승 기자

‘이미전시 푸드팩 사업’ 성서기초푸드뱅크

대구경북 최초 2021년 수행기관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는 지난 2020년도부터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식품 지원사업 ‘이미전시 푸드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전

국 450여개 소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달성군,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 지원

2021년 자활근로사업 추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2021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 재정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높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달성군은 자립·자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성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활근로사업단 19개를 운영하는 등 약 200여 명에게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한다.

자활대상자들은 달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장진입형(빨래장이, 달인의 짐닭 등 3개) ▲사회서비스형(고고부업, 대박농장, 클린세차, 분식점점장 등 12개)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자활도우미) ▲게이트웨이(자활사업관리)의 17개 사업단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사업단으로 총 19개 사업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취·창업을 통한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리스타, 운전, 조리사, 양재 등 자격증(기능) 취득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학원 등록 수



빨래장이 사업단

강료 전액을 지원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110명 중 58명이 탈수급 및 취업에 성공하는 등 탈수급률 53%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대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

업인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운영 중인 빨래장이 화원 본점, 빨래장이 현풍점, 빨래장이 서재점(3곳)에 이어,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는 등 신규 가맹점 1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에 있다. 금년은 폭넓은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률 60%의 성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사업(빨래장이)은 세탁사업의 체인화를 시도한 모델화로 경기, 울산, 경주, 김해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달

성군에 다녀간 바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자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운영 수준을 높이며 수급자 자활촉진을 달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자활참여를 원하시는 군민은 12월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대본가' 양평 해장국 식육식당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자주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사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해장국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곡리 강창 동서 타운 입구 상가에 있는 양평 해장국 식육식당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솔국·장국·해장국으로 불리던 전통음식으로 8.15이후 술로 지친 속을 달랠 수 있는 국이라 하여 해장국으로 불렸다 합니다.

사장님은 도축 가공 판매 전문, 칭정한우 도·소매점, 믿음한우 식육식당, 성앤준 푸드 등을 거쳐 현재는 지금 가게를 운영하면서 깡촌 4,900원 식육식당, 육고기(돼지갈비 전문점) 소탈한 해장국을 모집 중입니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 양, 우거지가 들어간 소양 해장국, 소고기와 우거지가 들어간 소고기 해장국, 양과 선지로 끓인 양평 해장국, 한우사골 김치찌개, 철판 주물럭+된장찌개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설렁탕 소내장탕도 있습니다.

양평 해장국에서는 전 메뉴를 직접 조리해서 드립니다. 사골 가루 및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한우사골 육수로 우려낸 천연의 맛으로 고객을 모십니다.

건더기 가득한 국물은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하고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자랑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포장 판매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영양이 들풀, 원기회복에도 좋다는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 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정재훈 기자

달서구체육회, 종목단체 협회장 선출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달서구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협회장 선거가 마무리 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달서구의 종목 체육을 이끌어갈 게이트볼, 축구 등 31개 종목의 협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종목단체 협회장 선거라 초기에는 선거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달서구 체육회의 수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선거에 돌입해 1월 18일까지 23개 협회의 회장 선거가 종료됐다.

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 말까지이며, 1월 말까지 종목별로 대의원총회를 거쳐 신임회장 임기가 시작된다.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전임 협회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달서구 체육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스포츠로 건강한 도시, 생활체육으로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체육회〉

당선자 명단: 정구연맹 강미라(60), 족구협회 배원경(62), 줄넘기협회 박민경(32), 체조협회 김미순(54), 축구협회 박명규(54), 탁구협회 안상덕(61), 태니스협회 김성배(59), 티볼협회 김대동(37), 파크골프협회 전용진(71), 프리테니스연맹 김장제(57), 합기도회 김유림(54), 검도회 오진희(52), 게이트볼협회 이창석(74), 국악기공협회 박성규(63), 농구협회 우상현(47), 댄스스포츠연맹 박하얀(37), 배드민턴협회 김동호(52), 요가회 권노미(55), 야구소프트협회 구교업(49), 유도회 박중안(61), 육상연맹 이규동(49), 에어로빅협회 이미옥(62), 태권도협회 임재홍(51)

대구테크노폴리스 가칭 테크노3초 신설 확정

유치원 20학급, 초등학교 20학급 2024년 3월 개교 확정

다행이다 다행이다. 현재 50대, 60대들은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복작거리는 환경속에서 어린시절과 청장년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한 반에 70명씩 앉아서 공부 하던 그 시절은 그게 당연했지만 2020년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방대한 예산으로 미래의 나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배려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관계기관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칭 테크노3초)라는 큰 선물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서 이코나로 우울한 시절에 엄청난 뿌듯함으로 견뎌나가고 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보다 인정은 더 사라진 현실에도 끗끗하게 해야할 일은 해내고 인간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일은 힘들어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세상은 유지되어가고 있다.

가칭 테크노3초신설은 신혼 가정이 많은 테크노폴리스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

선순위 일이다. 현 코로나 사태를 만나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진 이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도록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자성도 해봐야한다.

지구 위 가장 강자인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이 더 약한 것들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정도로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잘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참다

가 도저히 못참은 것들의 항거라고 생각이 드니 오싹해진다. 끝없이 번영하기만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도 당장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생족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배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의 지향이 아니라 낮고 어둡고 소외된 수 많은 것들

에 대한 나눔 연민 배려 그리고 돌봄·완전한 타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 또 그들과 세상살이를 오래도록 함께할 소중한 이웃이기에.

학교신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끝까지 함께 고민한 많은 따뜻한 사람들에게서 안될 거라는 냉소를 이겨내고 달려온 마음부자 그 분들이어서 코로나사태를 이겨낼 힘을 느끼면서 새해 또 새마음으로 달려가본다.

꼭 해내야하지만 아무나 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이기에 가능했던 학교신설. 그 누가 몰리줘도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결실을 맺고 당당하게 이 시절을 살아갈 뿌듯함을 얻었다는 것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테크노3초추진위원회 일동 드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달성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 도모

달성군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입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

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

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되고, 달성군 3인(부모, 자녀 1인) 가구 기준 예시로 최고액은 25만 4,000원을 지급하나, 분리 지급 시 부모 가구(2인)는 21만 2,000원과 청년 가구(1인)는 3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장작불 떡집 ‘주동 떡방앗간’

새벽 6시, 주동 떡집의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대를 이어 30년 넘은 떡집이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가게 안에 남아있는 장작불 아궁이다. 방앗간의 아침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증기 스텀으로 열을 내면서 시작된다. 정겨운 장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는 가게 외관부터 이미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장작들은 오래전부터 벌목하는 현장에서 나무를 실어오기도 하고 경산의 목공소에서 대형차로 운반해 와 장작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면 불 피운 시골 마당처럼 나무 타는 정겨운 냄새가 가득하다. 겨울이라 떡을 찌면

서 올린 김까지 더해져 아득하기까지 하다. 명절이면 하루 종일 김 풀풀 나는 동네 방앗간 앞에 긴 줄을 섰던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아직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보름 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고 하니 옛날 방식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보다.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장작불이라? 쉬운 방법을 택해도 되지만 수고스럽게 장작불을 지펴서 떡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기나 기름을 써서 만든 떡보다 장작불로 만든 떡의 부드러움, 질감, 향기 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장작불



로 만든 떡 맛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 한다. 그것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며 웃음 지으신다.

세월이 흐르고 편리함의 변화를 따라 가도 될 일이지만, 몸이 고단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

심, 떡에 대한 강직한 믿음을 잊지 않겠노라는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 오늘을 있게 만든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방앗간의 하루를 달구고 주인과 함께 열심히 일한 아궁이는 늘 그려하듯 어둠이 내리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진다.

승종국 기자

SANDBOX PLUS



연중무휴 트렌드 맛집

SANDBOX+

iHQ
Entertainment & Media GROUP

 **SANDBOX**

달서 · 달성



싹쓸이장터, 달서구에 방역물품 전달

싹쓸이장터(대표 이도영)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방역을 위해 텐탈마스크 10만장(800만 원 상당)을 달서구에 전달했다.



주은교육(주), 지역아동을 위한 도서 기탁

주은교육(주) (대표 흥혜숙, 안중현)은 지난 12일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아동들을 위한 감성동화 50박스(1,07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현풍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성금 기탁

현풍새마을금고(이사장 황태근)는 2020년 한해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백미 20kg 20포와 라면 30박스(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관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써 달리며 지난 14일 현풍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가스통은 사랑을 싣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쌍용개발용역(대표 황철성)은 소속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폐 가스통에 돈을 모아 156만여 원을 현풍읍에 기탁했다.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난방유 지원사업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곤수)는 겨울철 지역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난방유 지원을 결정하고,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총 20가구, 32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고령 · 성주



문화공동체 대가야 교육발전기금 기탁

문화공동체 대가야(대표 김하나)는 지난 14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고령고등학교 비즈쿨동아리

대가야희망플러스 성금 기탁

고령고등학교 비즈쿨동아리에서 지난 12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대가야희망플러스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

(주)화진스틸(대표 윤승희) 교육발전기금 기탁

(주)화진스틸(대표 윤승희)은 지난 14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교육 발전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주)중앙주철 · (주)중앙금속, 이웃돕기 성금 기탁

(주)중앙주철과 (주)중앙금속(대표 김승웅)은 지난 15일 고령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각 100만 원을 기탁했다.



우곡면, 사랑의 성금 기부 릴레이

노인회(회장 정규호)는 지난 15일 면사무소를 내방해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우곡면 경로당 21개소의 회원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이외에도 우곡면 연리마을주민 일동(2만 원), 봉산2리 마을주민일동(10만 원), 봉산2리 허영철 이장(10만 원), 예곡리 주민 박삼호(20만 원), 사촌리 마을주민일동(20만 원), 사촌리 마을주민 이순이(10만 원), 월오리 주민 곽의영(30만 원), 곽윤자(5만 원), 곽예지(5만 원), 담곡1리 주민일동(15만 원), 여성자원봉사회 일동(10만 원), 야정2리 마을주민 일동(10만 원), 야정2리 경로당 회원일동(10만 원), 사촌리 부녀회 일동(10만 원), 포1리 주민 김원석(20만 원), 대곡2리 마을주민 일동(10만 원), 봉산리 주민 최희정(5만 원), 최지용(5만 원), 담곡1리 경로당 할머니회원 일동(10만 원), 자율방범대 회원 일동(30만 원), 대가야 그린오아이작목반 회원 일동(20만 원), 도진리 부녀회 일동(10만 원), 도진리 마을회 일동(30만 원), 월오리 현등개발(주)(현금지정기탁 100만 원), 대곡1리 마을주민 일동(20만 원) 등 많은 분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재근 변호사, 장학금 1억 원 기부

이재근(57) 변호사는 지난 18일 교육 발전을 위해 기탁금 1억 원을 별고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주)이산, 주식회사 명륜산업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주)이산 및 주식회사 명륜산업은 지난 13일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고령성주축협 임직원 일동, 성금 200만 원 기탁

고령성주축산협동조합(조합장 문명희)에서는 지난 12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을 돋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수륜면 의용소방대

희망2021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동참

수륜면 의용소방대(대장 이상욱)는 지난 14일 수륜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리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유가읍민 사랑의 헌혈, 생명 나눔 실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보유량 감소와 단체 헌혈 급감 등 위기 상황 속에서 달성군 유가읍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로 생명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최근 대구·경북혈액원의 평균 혈액 보유량이 권장량인 5~6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2.9일 수준을 보이면서 자칫 위급한 환자가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헌혈 참가자는 총 85명으로 13일은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23명, 14일은 반도유보라아이파크 27명, 힐데스하임 19명, 우미린더포레스트 16명 등이 헌혈에 참여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달성군 유가읍 회원들이 헌혈봉사 도우미로 나서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을 보탰다.



헌혈에 참가한 김한우(반도유보라 이장), 이명기(반도유보라 입주자대표 회장) 씨는 “이번 헌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헌

혈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jtbc2



재 미 를 담 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God 일우의 TOEIC 'The LUV'



YBM동성로 대표강사 전일우 선생님의 토린아(토익+어린이)들을 위한 방송과 인터넷 강의. 집에서도 다시한번 토익을 즐겨보자.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뭉쳤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하고! 전해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여신 강림이란?

어른들은 말한다.

열여덟... 존재 자체 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존재 만으로는 절대 빛날 수 없다. 얼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한 소녀, 주경이 있다.

주경은 존재를 인정 받기 위해 메이크업이란 마법! 을 통해 여신으로 변신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유쾌하고 따뜻한 가슴 떨리고, 때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 제로였던 이 소녀가 자신의 'before'와 'after'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얼평하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랑 앞에서도 주춤하지 않고 당당한!

자존감 충만한 소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이웃사촌

백수기장 좌천위기 도청팀장 대권(정우)은 팀원들과 함께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자택 격리된 정치인 가족을 24시간 감시 하라는 미션을 받는다. 이웃집으로 위장 이사온 도청팀원들은 수상한 가족들의 모든 소리와 행동을 감시하면서 새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도굴

흙 맛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 (이제훈).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조우진), 전설의 삽질 달인 삼다리 (임원희)를 만나 환상(?)의 팀 플레이를 자랑하며 위험천만하고도 짜릿한 도굴의 편을 키우는데...



시청방법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고령군, 주민복지업무 첫 영상회의

사회복지정책 주요업무 연찬 및 읍면 연계협력 위한 체계 구축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11일 고령군 수어통역센터(군 노인회관 2층)에서 군 관계자 7명이 참석하고, 각 읍면의 사무실에서 복지업무 담당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사회복지정책 주요업무 연찬 및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읍면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영상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조기 발주 및 사업추진 철저 △ 동절기 취약계층의 한파대비 피해 예방 및 읍면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구축과 앞으로도 군·읍면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철정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으로

다변화 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의 한파대비 피해 예방 및 읍면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구축과 앞으로도 군·읍면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 지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116억 원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운전자금 지원은 1월

18~22일까지(자금 소진시 조기마감)신청서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수방식인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이다.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업체는 3억 원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에는 5억 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명절에 운전자

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다산면 자율방재단,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방역'

고령군 다산면 자율방재단(단장 이대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재단장 및 회원 10여 명이 긴급방역활동에 나섰다.

이날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다산면 소재 빌라 등 주거지

역과 상가, 경로당과같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이대원 다산면 자율방재단 단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

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철환 다산면장은 “다산면 자율방재단 이대원 단장과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쌍림면 예술인 작품집

‘2020 쌍쌍 ‘樂’ 예술에 취하다’ 도록 발간

고령군(군수 곽용환) 쌍림면과 쌍림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창환)는 쌍림면 예술인 작품집인 ‘쌍쌍 ‘樂’ 예술에 취하다’ 도록을 발간했다. 2019년 첫 전시회에 이어 2020년에도 쌍림면 예술인 전시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품집(도록)만을 발간해 재경향우회, 유관기관단체, 쌍림면 마

을회 등에게 배부해 예술작품을 감상하도록 했다.

이번 발간된 도록집은 쌍림면민 중 전문작가와 아마추어 작가들 예술인 총 28명이 모여 서예, 서각, 사진,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49점을 실었고, 2019년 첫 전시회 때 작품 45점도 같이 책자에 실었다.

오창환 쌍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쌍림면 예술인들의 정성을 담은 작품집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작품집 책

자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밀을 전했다.

최희준 쌍림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면민들과 지역예술인들 모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나 쌍림예술인들의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 고장이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성장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뜨거운 열기로 사랑의 온도탑 100°C 조기 달성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희망2021 나눔캠페인’ 시작 43일 만에 목표액 3억 6,4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 100°C를 조기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군민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해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령군민의 나눔정신이 온도탑을 뜨겁게 달구어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관내 기업체 및 유관단체에서 성금모금에 앞장 서 동참했고 노점상하시는 분들, 유치원생들의 저금통,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으로 모은 정성, 고령군민의 기부 등 다양한 계층의 뜨거운 열기가 모여 사랑의 온도가 올라갔고 현재까지 성금 3억, 성품 9,000만 원으로 총 3억 9,000만 원 가량의 성금을 모금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주민편의 중심 자원순환 체계 구축 본격화

성주군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전담 자원순환사업소 신설 조직개편 단행

성주군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생활패턴변화(코로나19 등)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전담부서인 자원순환사업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민 편의 중심의 체계적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성주',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성주'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즉각적인 쓰레기 회수·처리와 재활용 및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쓰레기는 곧 자원이다'라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는 Clean-Recycle System 구축을 위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쓰레기 처리능력 강화를 위한 郡지체 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25톤 용량의 자원순환센터를 4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환경부로부터

204억 원 규모의 국비확보를 완료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존 매립지 (134,431m³)는 순환이용정비 사업을 통해 신규 매립시설 확보에 버금가는 용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버려지던 공공처리시설의 폐열 등을 활용한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59억 원 규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마을 공동재배 온실 설치 및 태양광 보급 등이 내년

에 완공될 예정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2023년까지 5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처리용량 260톤으로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생산·판매해 수익창출과 온실 가스 저감효과도 거양한다.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함, 배출장소 주변의 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전수거를 확대하고, 음식물 종량제(성주읍부터 단계적 시행)를 시행하여 쓰레기 수집과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성주군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문전수거의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수거 폐기물 처리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아파트 또는 읍면사무

소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사물인터넷(IoT) 우유팩 수거함을 시범운영하고 운영성과가 좋은 경우 재활용품목 및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주군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를 오히려 재활용·자원화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는 동시에 처리의 즉시성과 주민 편의성을 함께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만족도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2021년 세계 최고의 과일 '성주참외' 첫 출하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최고 품질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성주참외가 지난 15일 신축년 새해 첫 출하가 시작됐다.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배태훈(34) 농가는 시설하우스 29동 규모에 지난해 11월 11일 정식해 80박스(1박스/10kg)를

첫 수확해 현지에서 박스당 평균 13만 5,000원에 월항농협, 서울청과 등으로 납품해 2021년 황금빛 참외 수확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성주군은 농가수 3,848호, 3,422ha로 전년대비 48호, 35ha 감소, 생산량 1,883톤 감소한 186,501톤을 생산했

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과 일의 감소, 국내 과일인 성주참외 소비의 증가(전년대비 택배물량 30% 증가) 및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성주조공 및 지역농협 중심의 통합마케팅이 판매 소비 촉진에 큰 역할을 하여 2년 연속 조수입 5,000억 원대 기록을 달성했다.

성주미래 100년 새로운 변화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성주미래 100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3~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비대면 영상촬영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당

초 7~14일까지 계획됐던 대면 교육을 13~14일 2일에 거쳐 동영상 촬영을 했고, 교육자료는 성주군 유튜브에 게시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 교육 동영상이 담긴 USB를 연중 대여하고 필요시 교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사례중심 참외 병해충 방제기술(김민수 연구

사), 2020 사과 작황분석 및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소백컨설팅 우병용 대표), 바뀌는 정부보급종 공급 및 벼 재배기술 교육(국립종자원 김진희 주무관) 총 3과정이다.

한편, 영상촬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을 했으며, 강사진들은 발열체크 및 활동 시간 외 마



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며 활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단

당(☎930-80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빅데이터 활용 단전, 단수 등 위기징후 대상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집중 발굴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 대상자 파악 등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2021년 3월 5일까지 행복e 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108 가구에 대하여 방문상담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며,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취약계층의 안전 사고예방

을 위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및 장애인, 한부모, 독거 노인, 조손가정 등 가구에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관내 원룸촌 주위에 위치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위기기구 발굴에 협조를 구했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지원,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사례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가 장

기간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기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기구 발견 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맛있는
대식들

comedy^{TV}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방송

者
가
12本
을 안다.

iHQ comedy^{TV} Dramax K-star LIFE CUBETV

지역 살리기 캠페인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기타(타구)지역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분동 970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욱 ‘따뜻한 봉사’

터미널 무료급식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기타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 ·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
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
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
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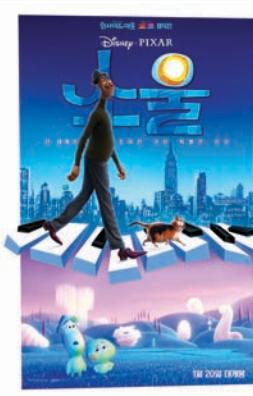
▶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
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
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1회 18:50 토·일 대방

2회 21:10

3회 23:15



2021년 신년기획

이정희 은행원 '농업인들과 30년을 함께 하다'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주인공은 대구경북 양돈농협 대천 지점 이정희 지점장이다. 취재를 위해 오후 4시 쯤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다행히 고객응대로 바쁜 시간이 아니라며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은행 문을 닫고는 그날 내방하신 고객님의 서류를 정리하고 전산 상으로 마감을 하는 업무를 하면 보통 은행업무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하지요.” 역시나 은행원은 은행 문을 닫고 나면 그날 업무가 시작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과중한 업무에도 안정적인 직업 특성이 장점이라는 이 지점장은 취재를 하는 도중에 연신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농협은행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보통 농협이라고 하면 농지농협이 많은데 저희 지점은 데지를 실제로 키우는 양돈업 종사자분들의 조합원이 되지요.” 조합원이 없으면 농협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과 함께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이 은행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는데, 물론 금융업무와 관련해 전문 경영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보통의 은행처럼 금융업무도 하지만 농업 경제 사업도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지요.” 취재 결과 농협은 실제로 농산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연구 용역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한 일에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 지점장은 “30년을 근무



하는 동안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한 만큼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지만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 농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 이 지점

장의 말처럼 상담실 뒤쪽에 걸려있는 “도전과 열정의 우리농협”이라는 문구는 바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이들을 향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원욱 객원기자

2021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월 24~26일까지 원서 접수, 3월 27일 필기시험

대구시는 2021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대구시의 올해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 시험방식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

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 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월 24~26일까지 3일간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3월 27일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시험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3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 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 100m달리기, 윗

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대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대구시 또는 소속 사업소 등의 청사시설 방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24.(수) 09:00 ~ 2.26.(금) 18:00 (3일간) * 취소: 2.24.(수)~3.3.(수)	필기시험(1 차)	3. 11.(목)	3. 27.(토)	4. 14.(수)
	체력검정(2 차)	4. 14.(수)	4. 25.(일)	4. 30.(금)
	면접시험(3 차)	4. 30.(금)	5. 7.(금)	5. 14.(금)

을 악이 보이는 채널
Event TV

채널번호
디지털 112번
아날로그 64-1번

내일은 미스터트롯
본방: 주중 월~일 오후 3시
재방: 주중 월~일 아침 7시

신창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롤센타
본방: 주중 월~일 오후 6시
연속편성
재방: 아침 10시

mini 콘서트
본방: 주중 월~일 오후 2시
재방: 주중 월~일 새벽 4시 30분

대구시 민원서비스, 집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두드리소·뚜봇·120달구벌콜센터’ 각종 민원 상담·신청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민원 상담·신청, 각종 공모 신청 할 때 대구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외출과 대면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할 답답한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타지자체보다 앞서 준비해 온 스마트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대구시 비대면 민원 서비스로는 ‘두드리소’, ‘뚜봇’, ‘120달구벌콜센터’ 및 ‘민원·공모홈서비스’가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구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19년 대비 두드리소는 37%, 뚜봇은 120%, 120달구벌콜센터는 20%, 민원공모홈서비스는 91%나 증가했다.

특히 ‘두드리소’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뚜봇’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시민 체감형 종합 민원 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챗봇 기반의 스마트 민원서비스다.

수 창구를 일원화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민원도 빠뜨리지 않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까지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구시 대표 민원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 12월말까지 총 12만 8,22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0년 민원처리 건수는 2019년 대비 월 평균 36.5%(877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속방법 : 웹(<https://smart.daegu.go.kr>) / 인터넷 검색창에 ‘두드리소’ 검색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뚜봇’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시민 체감형 종합 민원 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챗봇 기반의 스마트 민원서비스다.

2017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두 번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 현재 8개 민원분야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시

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해하거나 궁금한 생활민원에 대해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 없이 음성대화, 민원신고, 조회 등 의 기능을 포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원유형(8개): 행정, 차량등록, 문화관광체육, 환경, 보건복지, 도시주택, 안전, 경제산업

* 접속방법: 웹(<https://happy.daegu.go.kr>) /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창에 ‘뚜봇’ 검색

전화를 통해 대구 시정 전반에 걸쳐 상담이 이뤄지는 ‘120달구벌콜센터’는 지난해 상담건수가 2019년 대비 20% 증가한 총 42만 1,319건이 접수됐고, 1차 처리율 86%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위험사업장 예방 활동 강회를 통해 무증단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운영전문가를 보강해 체계적 조직관리로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 접속방법: 웹(<https://smart.daegu.go.kr>) / 전화: 문자 053-120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각종 허가·등록·신고증 신청 및 수령을 위해 두 번 이상 방문해야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8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등 14 종의 서식민원과 연간 400여 종의 공모·모집 사업을 서비스 중에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가능케 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접속방법: 웹(<https://minwon.daegu.go.kr>) /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공모 홈서비스’ 검색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방 문 신청만 가능했던 여권 재 발급 신청을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 장은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소통 공백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쫀득하고 부드러운 족발

창업 5년 차인 정희준(42) 사장은 현재 옥포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만의 족발 레시피를 개발하여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풍, 구지, 시지 세 곳에 분점까지 내어 운영할 만큼 당찬 젊은 야심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하셨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렵다는데 사장님의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에 조금은 놀라웠다.

껍질은 쫀득하고 살코기는 부드럽고 콜라겐 덩어리라 노화 방지와 피부미용에도 좋고 메타핀 성분이 간 해독에도 좋고 칼륨,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어 중금속 노폐물의 배출을 돋고 미네랄이 풍부하여 어린이 성장발육에도 좋다며 족발 사랑이 끝이 없다.

당일 팔고 남은 족발은 다음날 팔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영업철학은 한결같았고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고 한다.

참으로 올바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더 신선하고 맛 있는 족발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많은 분들에게 족발을 맛보게 하는 것이 새해 소망이라 한다.

전재홍 기자

달성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대상업소 모집

달성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대해 노약자 및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기존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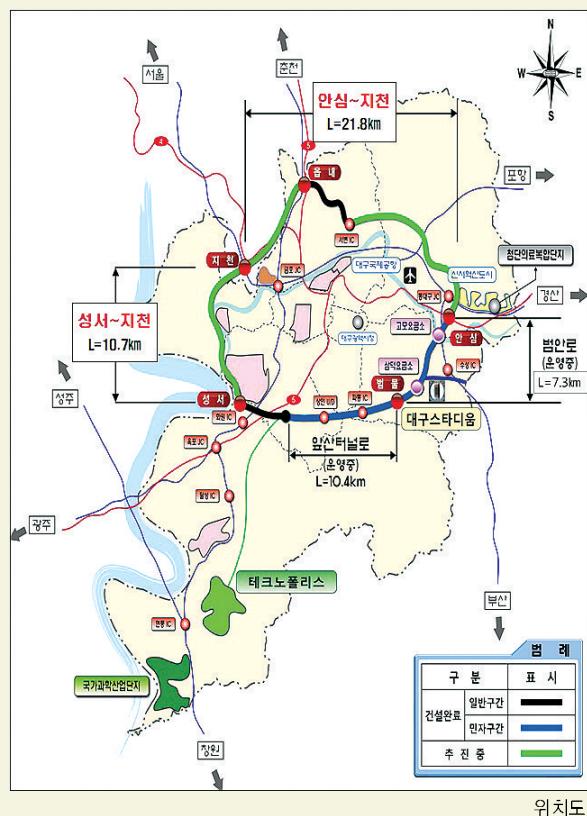
지난해 입식테이블 설치 음식점을 찾는 손님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올해는 90개소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여 추진한다. 군비 2만 7,000만 원을 확보해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영업주 관내 거주여부, 입식테이블 설치 수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순위를 선정하며,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본 사업은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월 1~10일까지 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행정팀(053-668-2761~2)으로 방문접수를 받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나아가 쾌적한 음식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대구4차 순환 고속도로 올해 말 완전 개통

대구시는 대구4차 순환 고속도로가 올해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4차 순환 고속도로는 2014년 3월부터 7개 공구로 나눠 공사 계약과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잔여 공사 구간은 성서에서
지천과 안심 있는 구간 32.5km
이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
다.

시에서는 도심을 둘러싸는 대구 4차순환도로 61.6km가 완전 개통되면, 대구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8개 방사축으로 만들어진 대구 도로구조 하에서 도심 통과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혼잡 해소와 더불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진상 기자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 등록지 구·군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 통해 신고·납부 가능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 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세는 지방자치단체
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
동차 세의 10% (연 세액의
9.1%)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 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시청을 하

지 않아도 관할 구·군에서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
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
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서
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
거나, 위택스(www.wetax.go.kr)

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 (www.etax.daegu.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
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

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
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
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문의처: 중구 (053) 661-2401, 남구 (053) 664-2401, 달서구 (053) 667-2401, 동구 (053) 662-2401, 북구 (053) 665-2401, 달성군 (053) 668-2401, 서구 (053) 663-2401, 수성구 (052) 666-2401

지구를 살리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세요

대구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
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

트를 산정해 현금 또는 그린
카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
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설
정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
라 연 2회, 연간 최대 5만 원

까지 지급된다.

참여를 하고 있는 43만 세대 중에서 지난 한 해 6만 3,000세대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5억 8,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3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

나무 약 565만 그루가 1년 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이다.

지구를 살리는 포인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http://cpoint.or.kr>)와 구·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연락 시청할 수 있다.

3.2.1. 윤지상 기자



따뜻한 배려가 감염병 시대를 넘어서는 힘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김일환 초대전'

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참꽃 갤러리 여든다섯 번째 마중으로 2월 18일까지 '김일환 초대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꽃으로 특화한 전시로 구성했다.

김일환 작가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예술 작업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의 작업은 한국문화가 비약적으로 변화했듯이 많은 방법적 모색 속에서 민족성에 무게를 두고 아름다운 형상을 찾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미적인 원형상(原形像)을 찾고, 풍부하면서 큰 틀을 가진 이념을 표현했다. 이 땅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을 이상적인 세계에 접근한다. 이상적인 세계를 향한 예술 가치관은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를 찾아 작품에 담았다. 작가의 이전 작업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담은 사실적인 소재로 극적인 방법적 고민이었다면, 꽃을 표현한 작품은 이상세계를



이념이 세상과 자신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작가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로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침투할 힘을 가지며 서로의 세계는

결국 하나의 통일된 공간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청년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부담은 덜고! 청년 만족은 더하고!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안정적 일자리와 목돈 마련 지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가면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비 7억 3,000만 원을 들여 313명을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반형'과 '정부연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일반형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에 450만 원, 청년에 27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연계형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에게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에 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구시는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타지역 청년도 지역 기업에 취업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하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형은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053-354-6801), 정부연계형은 대구경영자총협회(053-560-7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청년이 내일의 희망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교실 제1기 단원 모집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어머니합창교실 제1기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합창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이 커지면서 쌓인 부담감과 피로감을 익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

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35~55세 미만 어머니들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합창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이면 6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실기 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실기전형은 이수인 작곡의 '별'을 부르면

된다.

모집정원은 소프라노 1, 소프라노 2, 알토 총 40명이며, 개강일로부터 14주 동안 주 1회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이 있을 예정이다.

강습비는 무료이며 김유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비롯해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스태프들의 전문적인 지도

를 받고 수료음악회, 정기연주회 특별출연 등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월 22일까지며, 모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신영 기자

내 고장 문화 유적 탐방

151. 북망산천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상례문화

1) 프롤로그

지난 두 주에 걸쳐 우리 고장에 남아 있는 상역집과 상엿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화는 인류가 대를 이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고 시속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생겨나기도 한다. 인류는 시속이 아무리 변해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는 보존해 왔다. 현실에서는 용도폐기 됐지만 그래도 한때 인류가 향유했던 문화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버릴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유물 · 유적 · 유산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다. 유물 · 유적은 선조들이 남긴 ‘유형’의 가치를 말하고, 유산은 ‘유 · 무형’의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통상례는 선조가 남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잠시 옆길로 빠지기로 했다. 이번에는 상여 · 상엿소리와 함께 저 멀리 북망산천으로 사라져가는 유교식 전통상례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전통상례 절차

전통상례와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먼저 전통상례 절차부터 살펴보자. 참고로 상례와 장례는 서로 다른 의례다. 상례는 죽은 이를 처리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 것이고, 장례는 상례 절차 중 하나인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의례를 말한다. 유교식 전통상례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시신을 적당한 자리에 옮기고, 상주와 호상[護喪 · 상례를 주관하는 이]을 정하고, 주위에 상이 났음을 알린다. 이 과정을 ‘초종(初終)’이라 한다. 다음 과정은 염습 즉, ‘습 · 소련 · 대련’이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이불로 덮는 일, 소련은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서 묶는 일, 대련은 시신을 관에 넣는 일이다. 대련이 끝나면 상주를 비롯한 모든 복인(服人)은 죽은 이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분에 맞는 상복을 입는다. 이를 상복을 갖춘다 해서 ‘성복(成服)’이라 한다. 성복을 마치면 ‘치장(治葬)’을 한다. 치장은 묘소를 준비하고, 시신을 묻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치장이 끝나면 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 ‘우제(虞祭)’를 지낸다. 우제는 초우 · 재우 · 삼우 세 차례 지낸다. 우제를 마치고 석 달이 지나면 수시로 하던 곡을 아침 · 저녁에만 하게 되는데 이를 ‘졸곡(卒哭)’이라 한다. 졸곡 이후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있는 조상 신주 옆에 붙이는 ‘부제(附祭)’를 지낸다. [이때 조상 신주 옆에 붙인다고 해서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정식으로 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부제 시기는 중국과 우리가 다르다.] 첫 번째 맞이하는 기일에 ‘소상[小祥 · 13월]’을 지내고, 두 번째 맞는 기일에 ‘대상[大祥 · 25월]’을 지낸다. 대상 두 달 뒤 담제[31147祭 · 27월]를 지내고,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길제(吉祭)를 지낸다. 이로써 28개월에 걸친 긴 상례는 끝이 난다.

3) 잘 몰랐던 전통상례에 담긴 의미

초종에 ‘고복(阜復)’이라는 절차가 있다.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옷을 흔들며 북쪽을 향해 세 번 혼을 부르는 절차다. “○○○ 돌아오시오”하는 식이다. 이는 떠나버린 혼을 다시 불러들이고자 하는 행위로 죽은 이가 소생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서 묶는 염습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실

리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상과 같다. [죽은 이 기준으로 왼쪽에 밥, 오른쪽에 국] 아직은 죽음을 인정하기 싫다는 표현으로 평소 살아계실 때처럼 음식상을 올린다는 의미다.

‘우제’는 혼령의 두려움을 달래는 제사다. 유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승백강(魂昇魄降)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장사를 치르면 죽은 이의 백은 땅속에 묻힌다. 이때 백으로부터 분리된 혼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달래는 제사가 바로 우제다.

‘졸곡’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치고 아침 · 저녁으로만 하는 것이다. 졸곡을 기점으로 상종 제사는 흉제에서 길제로 바뀐다. 여기서 길제는 ‘길’하다는 뜻이 아니라 흉사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서서히 ‘평시’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담제’는 상복을 벗고 평상으로 ‘담담하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부터 술과 고기를 먹으며 친실로 돌아갈 수 있다. ‘길제’는 상례의 최종 절차로 비로소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 흉미로운 것은 길제 때 새 주인의 부인인 주부가 ‘흔례복’을 착용한다는 점이다. 또 길제

때 개제주(改題主)를 한다. 1-4대조 신주를 새롭게 제사를 받드는 새 주인을 기준으로 고쳐 쓰는 절차다. 곳간 열쇠도 길제 때 새 주부에게 넘어간다. 쉽게 말해 길제는 ‘새 종손 · 종부 취임식’인 셈이다.

4) 에필로그

최근 장례식장에서 상식상을 보면 밥 · 국 위치가 제사상처럼 되어 있는 예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식은 아직 죽은 이로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예에서 상식상은 제사상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상차림으로 되어 있다. 또 요즘은 초우 · 재우는 생략하고 삼우만 챙기는 예가 많다. 우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 또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옛 사람은 두려움 떨고 있을 혼령을 위해 장삿날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초우를 지냈다. 길이 멀 때는 여관에서라도 반드시 초우를 지내 날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전통상례 하면 흔히 3년 상을 떠올린다. 왜 3년 상일까? 이에 대한 답은 『논어』 「양화」에 나온다.

공자께서 재아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된 뒤에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난다. 대체로 3년의 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제인 것이다”고 하셨다.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십우제(1961년). (사진출처, 김언석 상례 사진전 도록)

목요단상(木曜斷想)

모뉴먼츠맨 monuments men

2차 세계대전 당시 모뉴먼츠맨(예술품 전담부대)이라 불린, 군인 아닌 군인 같은 군인들이 있었다. 히틀러에 의해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예술품을 지키기 위해 미술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귀한 예술품을 지켰다.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 유명 미술관의 걸작들을 우리가 감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후대에 가서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당대에는 이긴 자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도 그랬다. 자신들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한 도로건설 등의 사업들을 두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유적지에 길을 뚫은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으며, 국보급 문화재를 약탈해 간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빼앗아 간 것이었다. 이외에도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조작하거나 말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들이 이후 기록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민족정기를 되찾기 위해 침략 이전의 과거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병인양요를 비롯한 서양의 침략 때에도 많은 우리 문화재가 약탈당했다. 그들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반환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전 세계 어디에선가 그냥 버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민간인에 의해 발견되기도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약탈 또는 불법으로 20여개 국가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가 14만점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이 가장 많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지금까지 10개국으로부터 약 8천 여 점의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우리 것을 돌려받는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것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산 것도 있고 대여 형태로 받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빼앗긴 문화재를 찾는 일은 우리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고 나라이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전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든 유출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역사적 유적이 있는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유래와 가치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변점식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 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 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변없이 1355



길을 묻고 답하다

흔치 않은 인연

아마 이런 인연은 흔치 않을 것이다. 필자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국군과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파월장병에게 각급 학교에서는 위문편지와 위문품을 보내곤 하였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그때 위문편지를 쓴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파월장병 아저씨로부터 답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저씨'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으니, 가히 흔치 않은 인연이라 할 만하다.

아저씨의 말씀에 의하면, 월남 파병 당시 고국(한국)에서 보내준 수 없이 많은 위문편지를 받았다고 한

다. 위문편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제 읽어보는 것은 최소한 여중생 이상의 여학생 편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학생, 그것도 초등학생의 편지를 어떠한 연유로 읽었으며, 답장까지 했는가를 여쭈어 보았다. 그 말씀이 재미있었다. 휴지로 쓰려고 인기 없는(?) 초등학생 글씨의 위문편지 하나를 무심코 집어 들고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휴지로 사용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았는데, 초등학생치고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답장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초등학생과 파월 장병 아저씨 간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후, 아저씨는 파병 입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전역하기 전까지 서울 근교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그때 나는 그 부대에 면회를 가서 아저씨와 첫 상봉을 하였는데, 그 때의 설렘과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저씨는 전역 후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셨다. 중학생이 된 나는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당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동생과 함께 부산에 간 적도 있다. 그 이후로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서로 오가며 아저씨와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저씨께서는 초등학생 어

린애였던 필자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당신 일처럼 대견해 하며 기뻐하셨다. 특히 필자가 장군이 되었을 때에는 크게 감격해하지 않았으며, 금일봉까지 두둑히 주셨다.

요즘도 필자는 아저씨와 가끔 카톡을 주고받는다. 어느 연인의 사랑이 이토록 애틋하겠는가? 나의 자랑스런 아저씨, 그 이름도 장한 부산의 이해중 아저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파이팅이지 말입니다!



구용회 건양대학교 교수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예비 고3을 위한 대입 전형 대비 '온라인 수시캠프'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상담 통한 체계적인 대입 준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는 1월 23일까지 예비 고3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 대비 제11회 온라인 수시캠프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정을 온라인 방식(유튜브 및 줌 활용)으로만 진행되며, 대구 진로진학지원단과 진로진학협의회 소속교사 및 대학생 멘토 등 약 70여 명의 대입 전문가 그룹과 함께한다.

대입 전형 대비 수시캠프는 수시전형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식 수시 상담을 통해

사교육 컨설팅 비용을 줄이고 수시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수시캠프는 참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변화하는 수시전형에 대한 지원전략 모색으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서류평가, 면접고사 등 수시모집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 강연', '학생생활디자인관', '멘토-멘티관', '학부모 특강관' 등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다.

'학생생활디자인관'은 2학

년 2학기까지 완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기재 내용을 점검하고, 모의고사 성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학생들의 모집단위와 연계한 교내 활동 및 기재내용의 방향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들 중 모집단위와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글감 추출 및 작성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초안 작성률 미리해 본다. 전문교사단과 수시 캠프 기간 중 1 : 1로 2차례 상담을 온라인(줌)으로 진행

하게 된다.

'멘토-멘티관'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과의 사전 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대입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점, 성공과 실패 사례, 학습 방법, 슬럼프 극복방법 등을 점검한다. 멘토 1명당 동일 계열 지원학생 8~14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 진행으로 전체적 혹은 개별적 문제 해결 및 해결책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궁금한 점들을 멘토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학습과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초강연', '학부모

특강'은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2022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 등 생생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유튜브 채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학 전략과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열에 맞는 멘티학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시 정보를 공유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겨울방학 중 유치원 온라인 놀이콘텐츠 제공 유아.학교가자.com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기로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겨울방학 중 유치원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놀이콘텐츠를 개발해 '유아.학교가자.com'에 탑재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치원에서는 놀이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정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야외 체험활동, 가족여

행 등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집에서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겨울 '온라인 놀이콘텐츠'는 유치원교사 43명으로 구성된 원격수업 지원단이 매주 다양한 주제(환경, 겨울놀이, 겨울동식물, 눈과 바람 등)를 중심으로 책과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창의적 표현을 위한 그리기와 만들기, 즐거운 신체활동, 생활 속에서 탐구할 수 있는 수·자연놀이 등을 동영상으로 제

작하고, 온라인 플랫폼 '유아.학교가자.com'에 탑재해 유아가 매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특히 온라인 놀이콘텐츠의 교육내용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치원 온라인 놀이콘텐츠는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치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

의 놀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북구에 위치한 대구학남초등학교별유치원 장려원 유아의 아버지는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겨울방학 동안 '유아.학교가자.com'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활용해 매일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놀이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온라인겨울학교 타 시도, 외국 학생에게도 ‘인기’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설한 ‘대구온라인겨울학교’가 타 시도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 공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월 13일 기준 ‘대구온라인겨울학교’ 참여 학생 1만 700여 명 중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타 시도 학생이 1,500여 명, 미국을 포함한 싱가폴, 일본, 영국, 아랍에 소재한 학생이 40여 명, 전체 참여 학생의 14.4%가 타 시도 및 외국에서 접속해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온라인겨울학교’가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나이가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의 역할을 돋독히 하고 있다.

‘대구온라인겨울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학년별, 교과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

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년별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창체 수업을 구성하여 매일 학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형성하고 한 학년 수업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은 기본적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초를 탄탄히 다져 다음 학년을 대비하도록 했다. 사회와 과학은 2학기의 내용을 복습하고 학습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어는 원어민과 함께 쌍방향 영어 학습을 진행하고, 영어 말하기와 쓰기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첨삭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영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대구온라인겨울학교’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습, 생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습상담교사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리지원팀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4학년 과학 수업 동영상 예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의 상황에 맞는 상담 활동을 통해 코로나를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온라인겨울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주소창에 ‘대구온라인겨울학교.com’을 입력하면 손쉽게 접속해 학습 콘텐츠들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온라인겨울학교’는 대구 초등학생들의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타시도와 외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 학습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대한민국의 학생들 한명 한명의 학습 저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대구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2021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을 1월 20일 실기실험평가를 시작으로 26일 수업실연, 27일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제2차 시험은 2020년 12월 29일 1차 시험 합격자 28과목 313명(일반 28과목 307명, 장애 4과목 6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 28과목 2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험에서는 학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면호사시험 현재 결정의 취지

를 존중해 2차 시험은 학진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기시험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교원임용 시험(2차)은 면접, 수업실연, 실기시험 등 학진자의 시험 응시를 위한 제한 요소가 많으므로 학진자 응시가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건강상태, 치료

시설 여건, 시험 방식 등을 사례별로 검토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학진자 응시 허용조치에 따른 학진자 응시 사전신청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일림마당 > 시험·채용정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또한, 강은희 교육

감은 “응시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급적 대외 활동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2월 10일 발표 예정이며, 시험 응시자의 개별 성적은 대구시교육청 중등임용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겨울방학 특별 기획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대구의 이색 박물관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가득한 국립대구과학관

박물관 연재 네 번째 소개할 곳은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이다. 기자도 이미 서너 차례 다녀와 보았지만 이번에 취재를 위해 다시 다녀와 보니 새삼 그 규모와 수준 높은 전시 물에 놀랐다. 특히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기자가 찾아간 날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입장권 할인도 있었다. 과학관은 상설 전시관과 4D 영상관, I-Play관, 특별전 등 모두 따로 입장권을 끊어야 하는데 연령제한과 키 제한이 있는 곳이 있으나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보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2층에 있는 상설전시관 1관에서는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리와 실제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어 어린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2관은 IT, 섬유, 한의학,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역산업 속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체험이 제한된 전시물이 많았으며 한창 관람 중인데 정기 방역으로 모두 전시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해서 방역은 이제 일상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기자가 이번에 눈여겨 취재한 것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온가족 체험교육, 교과연계교육, 사이언트리



(별관 천지인) 교육, 전시물연계교육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온가족 체험교육은 매주말, 공휴일에 온 가족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월데이클래스이다. 3D 프린팅, 로봇코딩, 미니드론 만들기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학교실험 다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교과연계교육은 매주 토요일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제목 그대로 학교 교과에 나오는 모든 실험을 다해보는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3개월 과정이지만 정원 미달 시 현장접수 후 당일 프로그램만 수강할 수도 있다. 전시물연계 교육도 주말마다 이루어지는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아이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골고루 체험해 보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이곳 교육프

로그램이 꽤 체계적이고 유익하며 상당히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비가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하자.

모든 박물관이 그렇지만 특히 국립대구과학관은 한두 번 다녀온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곳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꾸준히 이용해서 아이들이 과학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훌륭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고 이런 시설을 백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해 주고 과학꿈나무로 키우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서순옥 객원기자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안전하고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는 겨울방학 중 1월 22일까지 1주일씩 2회기로 나눠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최고의 진로직업 및 체육시설,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학기 중 전일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여름과 겨울방학을 활용한 계절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학생 개인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진로직업 프로그램 7종(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예, 판매실습, 플로리스트, 교육언극, 사무행정)과 ▲특수체육 프로

그램 3종(뉴스포츠, 스트레칭, 건강운동) 등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미와 여가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해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프로그램별 인원 축소 편성, 개인별 거리두기 및 감염방지지원을 위한 교사 확충, 개인별 방역 용품 키트 지급 등으로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각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쳐있을 수 있으나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푸른방송이 만들어가는
디지털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D·UHD 방송

TALK

지금 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2021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전

5년간 수집 및 보존, 수복 작품 45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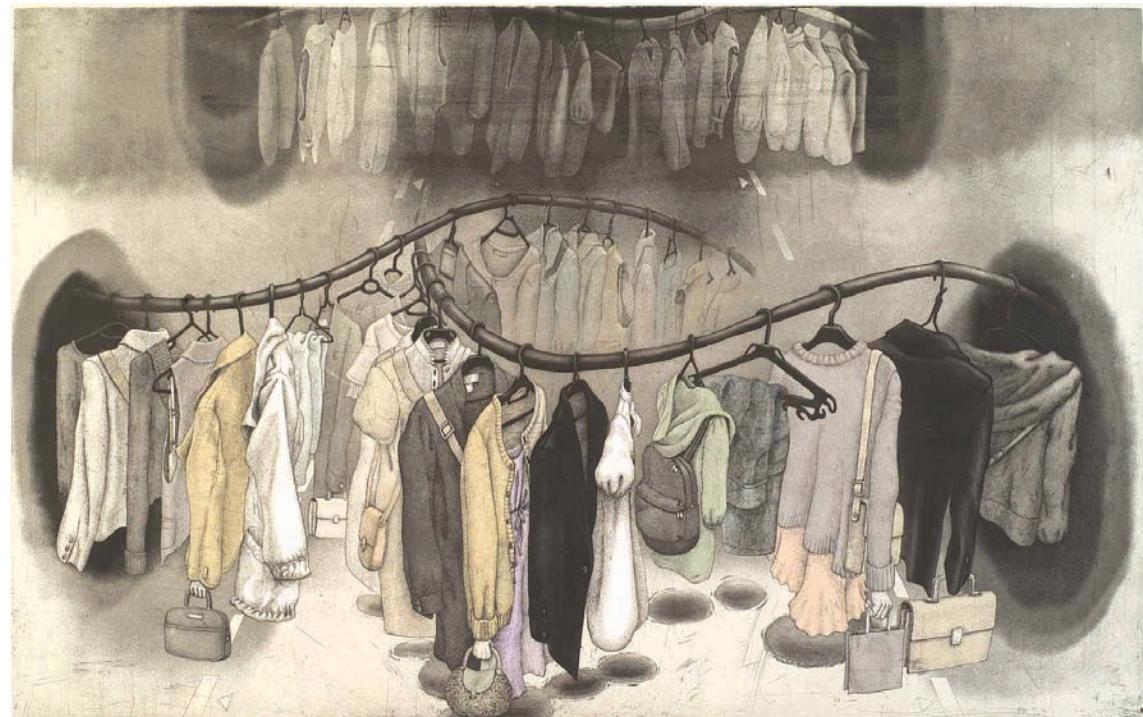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형국)은 2021년 첫 기획전으로 최근 5년간 수집하고 보존, 수복한 작품을 선보이는 '2021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전'을 3월 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1991년 개관한 이래로 수집한 작품 중 일부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회화, 공예, 판화, 서예, 사진 등의 작품이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3전시실에서 소개된다.

올해 소장작품전에는 41명 작가의 작품 45점이 전시된다. 최근 5년간 수집한 작품과 수복 및 보존 처리를 마친 작품들을 중심으로 원로작가 회고전과 올해의 청년작가전을 통해 기증된 작품 등도 선보인다.

미술관의 작품 수집은 미술관이 속한 사회, 지역, 사람들에 기반을 두고 그 성과를 계승하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소장품의 수집과 해석은 전시, 연구, 교육 등 미술관의 여러 기능과 연계된다. 따라서 미술관의 여러 업무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체성과 의미를 상상해보고, 작품과 마주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3개 전시실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1전시실에서는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강근창, 강정희, 권정호, 김동길, 김봉천, 김우식, 김점희, 문정자, 박광호, 송광의, 이도현, 이향미, 허용의 작품을



김소희, Platform, Etching, chine-colle, 63x100cm, 2010

전시한다. 한국화와 서양화, 구상작품과 추상작품 등 장르와 기법, 색의 차이가 작가 고유의 방법으로 표출된다.

2전시실에서는 작품의 재료, 방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작품을 선보인다. 문종옥, 신경철, 안효찬, 유현, 이재호, 이천우, 장미, 정점식, 정재훈, 정지현, 최현실의 회화작품과 조소작품을 전시한다. 동시대, 그리고 현실의 삶에 근거한 자연, 현상,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새로운 시각과 소재의 변화에 따른 작품의 표현은 관람객들에게 질문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3전시실은 강영호, 김재수, 김태한, 박달근, 김대일, 김소희, 김승현, 김종희, 김지희, 류지혁, 박인성, 변보은, 서상희, 여동한, 이민주, 이성조, 흥현기의 회화와 공예, 사진, 판화, 서예 작품을 전시한다. 개성이 뚜렷한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을 폭넓고 다채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DSAC 달서 인 아트 '달서미술협의회 – 봄은 온다' 展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오는 26일~2월 10일까지 DSAC 달서 인 아트 '달서구 미술협의회전-봄은 온다' 展을 개최한다.

달서구미술협의회는 2010년부터 대구지역에서 미술을 통해 달서구의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미술교육, 체험사업, 문화유적 답사 및 기타 미술교류 행사를 열어 지역에 봉사하는 협의회로 성장하고자 설립됐다.

매년 전시회 개최 및 한마음 아트페스티벌 등의 개최로 장애 미술인 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달서구미술협의회는 현재 120명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구의 미술창작활동을 대외적

으로 알리고자 노력하는 예술단체이다.

이번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주최로 초대되는 DSAC 달서 인 아트 '달서구 미술협의회-봄은 온다' 展은 봄의 향연과 그리고 따뜻한 계절의 아름다운 여운을 작가마다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다. 전시의 구성은, 추영태의 황금 매화 작품을 비롯하여 이정기 작가 등 회원작품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예술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DSAC 달서 인 아트 '달서구 미술협의회-봄은 온다' 展은 달서구 지역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일뿐만 아니라 달서구민 그리고 대구시민 모두에게 마음의 휴식과 심리적 평온을 느껴볼 수 있는 문화



이정기_봄은 올꺼야, 종이위에 수채, 8호

향수 보급의 기회가 되길 기대본다.

자세한 문의는 웃는얼굴아

트센터 문화기획팀(053-584-8720) 및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

(www.ds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개관 10주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

‘다이얼로그·대구미술관& 매그재단 미술관’, ‘대구의 근대미술·때와 땅’ 등 9개 전시

대구미술관(최은주 관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2021년 슬로건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 터치 뮤지엄(High Touch Museum)’으로 잡고, 온·오프라인 전시, 교육 및 디지털 미술관 운영을 강화하여 다양한 소통과 심화된 기획이 가능한 미술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코로나19으로 인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소장품 100선, ▲Y, Y+ 아티스트 성과 보고전, ▲달이 떴다고, ▲새로운 연대, ▲최정화, ▲팀 아이텔, ▲정재규, ▲메이드 인 대구 II,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_조덕현, ▲이인성 미술상 20주년 기념특별전, ▲악동 뮤지엄 II 등 총 11개 전시와 200여 차례의 교육, 이벤트를 개최해 현장 54,555명, 온라인 119만 7,206명의 관람객과 함께 했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걸어온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

운 10년을 계획한다. 특히 비대면 시대 달라진 문화예술 향유 방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1년 슬로건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 터치 뮤지엄(High Touch Museum)’로 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시공간을 넘어 미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교육, 이벤트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미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슬로건 ‘하이 터치’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할수록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찾게 된다는 미래학자 폰 네이스비츠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인용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미술향유 격차를 줄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구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관 10주년,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9개다. 2월 9일~6월 13일까지 선보이는 개관 10주년 기념전 ‘대구의 근대미술: 때와 땅’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



이인성_가을어느날, 1934, 96x161.4, 캔버스에 유채, 리움

지 근대기 대구 미술을 조명한다. 이인성 ‘경주의 산곡에서’,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을 비롯해 서병오, 서동균, 김용조, 박명조, 김수명, 주경 등 한국근대미술 주요 작가 70여 명, 140여 점 작품을 통해 대구 미술의 역사에서 근대적 선각자들이 품었던 ‘시대의식’과 ‘민족의식’을 살펴본다.

개관 과정과 이후 10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개관 1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도 기대해 볼 만하다. 대구미술관 역사를 담은 사진, 인터뷰, 문서, 과거 리플릿 등 입체적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각계 각층의 노력과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전시는 2월 23일~6월 27일까지다.

10월은 세계 최고 미술재단으로 손꼽히는 매그재단(Foundation Maeght)과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제목인 개관 10주년 기념 ‘다이얼로그·대구미술관 & 매그재단 미술관’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인간성 회복’과 ‘미술의 본질적 물음’을 주제로, 두 기관의 소장품이 마치 문답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자코메티, 샤갈, 미로 등 전후 유럽 미술의 정수와 곽훈, 이강소, 이명미, 정점식 등 대구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10월 19일~2022년 3월 27일까지 만날 수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교육프로그램도 대상과 참여방법을 확장한다. ‘인문학’, ‘미술사 강좌’, ‘악동 뮤지엄’, ‘미술관과 사람들’,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대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또한 전시와 미술가를 이해하기 위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도슨트 프로그램’과

‘학술행사’, ‘안녕 담씨!’, ‘담씨네 교육상점’을 비롯해 일반인 및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한다.

대구미술가를 온라인으로 만나는 ‘나의 예술세계’ 영상 제작, 디지털기술 기반의 ‘실감 콘텐츠 제작’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국내외 미술관련 전문도서자료 9,946점을 보유한 ‘미술정보센터 서비스’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미술관과 온라인 홍보 채널은 지속 강화한다. 성인 대상의 전시투어, 작가 인터뷰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어린이 대상 전시투어, 수화 전시 투어, 전시 오디오 가이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웹 운영으로 전시 이해도를 높이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채널,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미술관 이야기를 공유한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운영한 누리집 내 ‘디지털 미술관’ 콘텐츠를 강화해 코로나19로 달라진 문화예술 향유 방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단계별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자료제공대구미술관>

※ 대구미술관 2021년 전시일정

연번	전시명	장소	기간	전시내용
1	개관 10주년 기념전 대구의 근대미술 <때와 땅>	1전시실	'21. 2. 9. ~ 5. 30.	전통 서화에서 벗어나 근대 미술형식으로 확장되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까지의 대구 지역 미술사 조망
2	개관 10주년 기념전 대구미술관 10년 아카이브전 <첫 번째 10년>	4,5전시실	'21. 2. 23. ~ 6. 27.	개관 10주년을 맞아 미술관이 건립되기 까지의 과정과 개관 이후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대구미술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
3	개관 10주년 기념전 대구포럼 1 :Since 1974	1전시실	'21. 6. 15. ~ 10. 3.	대구현대미술의 주요기점인 1974년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역 및 동시대미술의 주요경향을 잇는 국내외 작가 전시
4	개관 10주년 기념전 다이얼로그: 대구미술관 & 매그재단	1전시실, 어미홀	'21. 10. 19. ~ '22. 3. 27.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하여 프랑스 매그재단과 대구미술관의 우수 소장품을 소개하고 코로나 19로 상처받은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공감의 메시지 전달
5,6	대구작가 시리즈1 <정은주> <차규선>	2,3전시실	'21. 2. 2 ~ 5. 23.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는 DArtist 의 종견작가로 선정된 정은주, 차규선 개인전
7	대구작가 시리즈2 <차계남>	2,3전시실	'21. 6. 8. ~ 9. 26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는 DArtist 의 원로작가로 선정된 차계남 개인전
8	Y아티스트 프로젝트	4,5전시실	'21. 7. 13. ~ 10. 10.	2021년 개편된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로 젊은 작가 주제 기획전
9	강요배전	2,3전시실, 선큰가든	'21. 10. 12. ~ '22. 1. 2.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강요배의 개인전

MBC⁺

CREATIVE MEDIA GROUP



MBC every+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MBC SPORTS+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MBC drama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MBC M
내 손 안의 즐거움



“Fun Again!”



MBC ON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MBC⁺
CREATIVE MEDIA GROUP



대구시 수질연구소,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먹는물 법정검사 60개 전 항목수질 분석 전문기관 입증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 연구소는 국제시험기관인정 협의체(ILAC)¹⁾에 가입된 산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원 한국인정기구(KOLAS)²⁾로부터 수질 및 미생물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했다.

1)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2)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평가해 특

정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이하 수질연구소)는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물 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지난해 초부터 준비해 기관의 인력, 시설 및 환경조건, 시험장비와 시험결과 등 문서심사와 먹는물수질시험방법 등 현장 평가를 거치고 인정심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인정을 받았다.

계다가 수질연구소는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



로서 물 검사 분석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지난해 3월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먹는물 분야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만족'을 받아 '적합기관'으로 선정됐고, 5월엔 국제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먹는 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질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에 가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다.

김철섭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수질연구소는 명실상부한 국제 수준의 물 분석 기술 능력을 갖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수돗물의 시험 결과가 세계적 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타는 듯한 속쓰림, 한방 치료 받으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란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야 할 음식이나 위산이 반대로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여 만들어내는 여러 불편한 증상을 말한다. 광고로 인해 익숙한 '속쓰림' 뿐 아니라 가슴의 답답함, 흉통, 만성기침, 목의 이물감, 위산 역류 증상, 구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역류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식도에 궤양, 미란 등의 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식도 괄약근의 이완과 낮은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괄약근의 미성숙, 짧은 길이, 연동운동 감소, 위 배출 시간 지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보통 PPI라는 위산분비억제제를 사용한다.

한의학적으로는 허실(虛實)을 구분하여 치료한다. 스트레스를 받아(氣鬱)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된 경우나 과식으로 인해 적(積)이 형성되어 역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을(鬱)을 풀어주는 처방과 위산분비를 조절하는 한약을 쓰게 된다. 비위기능이 약하여 괄약근이 이완되어 있거나 위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장기능을 도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한약 치료 외에도 침구치료가 병행되어 진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위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은 이미 위가 팽창했다는 이야기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 배부름 증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습관을 키운다. 복부비만은 복압을 올려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킨다.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배설을 빼야한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몸을 움츠린 자세는 위를 압박하여 역류를 증가시킨다. 야식을 먹는 생활습관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두 번째로 먹는 음식을 바꿔야 한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카페인, 탄산, 술, 산이 강한 과일(신맛이 강한 골, 토마토, 사과 등)을 줄이고 대신 위 점막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진 바나나, 마, 양배추, 무 등이 좋다. 마나 무는 산약(山藥), 나복자(蘿蔔子)라 하여 한약재로도 사용된다. 평상시 변이 무르고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한다. 위에 좋은 음식들도 날것으로 먹는 것 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위산분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때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 술, 담배로 푸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방법이다. 적당한 운동, 노래부르기,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중완, 위수, 내정, 내관, 공손혈 등 혈자리를 자주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영유아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체험실 운영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 실시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비대면 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해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나선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형 놀면서 자란다_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내 학습공동체를 구성, 교육 및 소모임 컨설팅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실시간 온라인 공유워크숍을 실시해 보육과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각종 영유아 시설의 휴원 등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아이들을 위해 주제별, 연령별 놀이활동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놀이·동화생활'을 체험실누리집(<https://www.tgcare.kr>)을 통해 매월 제공한다.

체험실누리집 온라인 활동안은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는 매월 주제 중심(계절, 동물, 교통기관 등)의 동화, 신체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부모들에게는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기존의 대면 형태의 상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비대면 형태의 육아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 가정에서의 건강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기존 대면 형태의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한 사람에 한해 놀이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영유아 체험실을 개방하고 있으나 방문 1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장난감 대여서비스도 동시간대 1가정씩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누리집(<https://www.tgcare.kr>)과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053-421-23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육아종합지원센터>

1월 25일 ~ 31일

재미로 보는 **술(서)**



36년생 참고 견디면 그만큼 이익이 생길 수 있다. 48년생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시기이다. 60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길을 바꾸는 것이 좋다. 72년생 집중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 84년생 윗사람과의 약속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다음으로 미루어라. 96년생 짜증이 많이 날 수 있다. 참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



37년생 되도록 큰물에서 놀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49년생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61년생 부정한 행동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3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85년생 이성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97년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8년생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존경받는다. 50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빠르게 가려 하면 넘어지게 된다. 62년생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바꾸면 화를 당하게 된다. 74년생 동료를 배반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 86년생 새로운 일은 계획대로만 진행하라. 변경은 좋지 않다. 98년생 과거에 얹매이지 말아라. 몸과 마음만 피곤해 진다.



39년생 자녀의 일이 잘 풀리니, 가정이 화합하게 된다. 51년생 자성하면 김천이니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63년생 부당한 방법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니 주의하라. 75년생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 87년생 삶에 여유가 생기니 잠시 쉴 시간이 생긴다. 99년생 계획한 일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음으로 미뤄라.



40년생 허영심을 버리면 이득이 생길 수 있다. 52년생 형식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순조롭다. 64년생 일관성 있게 나가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76년생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경력이 쌓인다. 88년생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다. 타인의 비판이 있어도 겸허히 수용해라. 00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41년생 그간의 걱정이 사라지고 재물이 들어온다. 53년생 그동안의 어려움이 해결 된다. 65년생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인데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이 된다. 7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89년생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 법이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01년생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바라게 된다.



42년생 어린 사람과 다투면 손해를 본다. 54년생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설수를 조심하라. 66년생 자신을 낮추고 근신해야 일이 풀린다. 78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90년생 조금만 참으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43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욕심 내지 마라. 55년생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면 손해를 본다. 67년생 고생을 한 뒤에 이득이 생기게 된다. 7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니 재물이 쌓인다. 91년생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4년생 무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큰 이익은 없지만 작은 이익은 반드시 찾아오니 노력해야 살 수 있다. 68년생 거창한 계획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80년생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 어렵지 않다. 92년생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변화를 주게 되면 사기를 당할까 두렵다.



45년생 주변 사람들과 화합할 일이 생긴다. 57년생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69년생 두세 번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이룬다. 81년생 친한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93년생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니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46년생 그동안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58년생 잘못된 일을 빠르게 고치니 운이 열린다. 70년생 돈은 나가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 82년생 체면을 세우려다가 돈만 나가게 된다. 실속을 따져야 한다. 94년생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된다.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 59년생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귀인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 71년생 사사로운 인정에 매달리면 괴로워지니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 83년생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95년생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

제공:당신의 멘토, 운조아 (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1월 21일 목요일



최저 -2°C
최고 12°C

1월 22일 금요일



최저 4°C
최고 14°C

1월 23일 토요일



최저 7°C
최고 10°C

1월 24일 일요일



최저 5°C
최고 9°C

1월 25일 월요일



최저 -2°C
최고 10°C

1월 26일 화요일



최저 -1°C
최고 -9°C



시사상식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서문,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 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